



濁流清論

제53호 2018년 5월 25일(금)

발행인: 정 영 기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jy717@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우리의 총장: 우리의 자화상

행정학과 강명구

우리의 총장은 백마 타고 오지도 않고 공짜 점심도 줄 수 없다.

다만 우리를 무력감에서 건져 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제 스스로 돕는 자가 된다면.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오래 전 아주대 최초로 교수신문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제호(題號)를 <탁류청론(濁流淸論)>으로 제안한 사람은 나였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겠지만 당시는 학내 상황이 어수선하던 때였다. 일제 말엽 신산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채만식의 소설 <탁류>가 언뜻 떠올라 여기에 의미는 대비시키되 리을(ㄹ) 자로 운율을 맞춘 청론(淸論)을 덧붙인 결과 <탁류청론>이 탄생하였다.

그로부터 세월이 꽤 지나 이제 정년을 2년 앞둔 ‘허름한’ 교수가 되어가고 있는 나는 이 제호가 자못 부끄럽다. “<탁류청론>이 아니라 <청류탁론(淸流濁論)>”이라는 비아냥은 한 귀로 흘리면 되는 일이지만 청론이고 탁론이고 간에 론(論)의 샘플이 가물어 류(流)의 의미 자체가 말라가기 때문이다. 아주대학을 이끌어갈 나의 동료이자 다음 세대에서 글 쓸 사람을 찾지 못하여 이미 물레방아를 돌려버린 홀러간 물이 되 퍼올려짐은 우리네가 겪고 있는 세대절벽의 테자뵤를 보는 것 같아 마음 편치 못하다.

신임 총장도 모시고 하였으니 이 주제로 좀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략 난감하였다. 앞서 말한 사연도 있거니와 이것이 진정 의미 있는 토론 주제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거버넌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우리의 총장: 우리의 자화상	1
<u>특집</u> '신임 총장에게 바란다' 단대별	4
<u>소통과 담론</u> 아주대학교,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13
<u>교수들의 건강칼럼</u> Physician-Scientist?	15
<u>소식</u> 교수회 제89, 90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16

그러나 (자못 치열했던 교수회 의장과 대학 평의회 의장 경험을 하였던) 나의 사반세기 아주대 교수 경험으로 볼 때 글 쓰는 이를 지배하는 우선적 사고의 실체는 무력감이다. ‘애써 떠들어보았자 무엇하나?’ 라는 심사가 우선 들었다는 말이다. 무력감의 근원은 여러 갈래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주대학교 교수사회에 대한 실망감이다. 물론 이 실망감은 기대(혹은 교수사회에 대한 자부심)가 큰 것 만큼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점 점 얼어져가는 아주대 교수사회의 ‘공적(公的)인 것’에 대한 관심에 더 기인한 바 크다. 한 마디로 모두 문 걸어 잠그고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건 연구하는 일이건 제 할 일만 하고 자신을 벗어난 좀 더 큰 공동체의 일에 참으로 무심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도 들지만 대학 평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교수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총장 선출 과정이 어찌 되는지 무심하거나 무지한 사람이 대다수다.

개인과 (혹은 개인의 연장에서 가족과) 국가만 있고 이 사 이가 텅 비어있는 우리네 시민사회의 데자뷰다. 격렬하였지만 동시에 내 발 딛고 서있는 바로 이곳의 일상에서는 허무한 우리네 민주주의의 복사판이다. 공적인 일에 점 점 무심해지는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걱정하는 어떤 미국학자는 이를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이라고 논문 제목을 달았는데, 이는 우리네 아주대학 교수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각자도생(各自圖生) 혹은 제 혼자 살아남기 전략과 뭐가 다른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려나 기본만 지키면 정년보장 되고 때 맞추어 급여가 지급되니 각자도생은 교수사회의 가장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거리의 장삼이사(張三李四)가 그러할 때는 비록 청송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자칭 타칭 은근히 지성인입네하는 대학사회의 교수들이 이런 행태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이를 부패는 아닐지라도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 moral hazard)라고 감히 불러도 될 것이다. 아니 대접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대접에 걸 맞는 행동은 주저한다는 점에 있어 이중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한 번 얼굴 붉어지도록 호되게 당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교수사회의 통제 필요성을 느끼는 권위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아 적당한 명분하에 집단행동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주로 압력을 행

사하기 때문이다. 설혹 압박이 적정수준을 넘어도 한 꺼풀 더 방어선이 있으니 각자도생의 전략적 선택은 아직 유효하다. ‘그 놈의 고약한 양심 때문에’ 혹은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싫어’ 나보다 먼저 일어서는 일군의 비합리적인 무리가 있으니 말이다.

두 번째 무력감의 근거는 교육부와 그 교육부가 사학재단과 협력하여 만들어낸 사학법의 존재다. 지금은 별로 ‘슬기롭지 못한 깜빡 생활’을 하는 듯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금은 자유 한국당이 된) 제 1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대표였다. 사법개혁을 위한 로스쿨 제도 도입에 목매던 노무현 정부는 ‘촛불’ 들고 한 겨울 바람찬 거리로 나선 (영남대의 사실상 실 소유주였던) 박근혜 대표와 이른바 빅딜(big deal)을 하여 독소조항을 탑재한 사학법을 받아들였다. 핵심은 사학재단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하여 공적 기능을 하는 교육적 요소를 형식적 수준에서만 보장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빅딜은 교육 마피아라 불리는 관료집단의 이해관계도 적절히 버무려진 결과인 것은 말할 나위없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이 남의 얘기였던 사학법의 실체를 똑똑히 절감한 것은 교수회와 대학 평의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구체적 사안에 접하면서부터였다. 사학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개방이사 선출에 있어 재단과 재단이 기댄 사학법은 그야말로 절벽이었다. 어떠한 수를 써도 (반대의 목소리는 고사하고) 그나마 이사회 뒷얘기라도 알려줄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뒷이야기지만 이 와중에 보여준 아주 자동차 대학 평위원회의 행태는 그야말로 없는 것이 차라리 나올 수준이었다. 총장선거만 해도 이사회가 통과시킨 정관에 의거하여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사회 정관은 전원 재단 관련 관계자 일색인 회의에서 단순 다수결의 결 정족수를 넘기면 되는 것이다. 사학법의 회계규정을 어겨 잘못 투자한 결과 날린 80억의 돈도 일개 팀장의 잘못으로 결판나니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 따로 없다. 짧은 글에 저간의 사정을 낱낱이 고하기 어렵지만 상술(詳述)을 기다리는 예시는 차고도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총장이 그것도 단 한차례의 4년만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대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몰랐으면 모르되 알고도 모른 채 할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점심집회를 시작하면 대체로 어색하고 냉랭했던 동료들의 시선들이 생생하다.

이 와중에 “데모 안하는 의장 뽑자”는 얘기 들으면 “야, 너 방과 후에 뒷산으로 와!”라던 어느 영화대사가 절로 생각났다.

세 번째 무력감의 근거는 (교수사회가 공적인 일에 관심을 좀 주고 사학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바라는 총장은 백마 타고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단과대학별 간담회에서 신입 총장을 접하는 교수사회의 자세는 적나라하다. 우리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추되었는지, 우리 전공이 얼마나 더 신입교수를 필요로 하는지, 연구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런 요구들이야 들어줄 수 있다면야 금상첨화겠지만 냉정히 생각해 볼 때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대략 기대난망(期待難望)이다. 아니 이런 요구들을 덜컥 들어준다는 총장은 일단 의심을 해 봐야하는 것이 순리다. 객관적으로 보자.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대입 진학 연령 학생 수는 줄어들고,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경제가 장기 투자인 교육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점 점 더 어려워지고, 수많은 경쟁대학이 정부에 나름의 그럴듯한 이유를 대어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혹은 교육부 관료)는 모든 부담을 대학에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언론은 언론대로 (중앙일보 평가에서 보듯) 대학이라는 먹잇감을 뉴스 소재로 삼을 것이고... 불리한 조건의 나열은 줄이 길다. 주관적으로 보아도 신입 총장은 교수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여력도 없거니와 정말로 무엇을 한 번 해 보고픈 열망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의지는 열어지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재단은 영원(?)한 데 총장은 4년 단임이다. 비록 그가 이른바 ‘준비된(?)’ 총장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기본인 조직, 인사, 재무 그 어느 것 하나 표피적인 개혁 말고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재단과 암묵적 타협 하에 초반의 드높던 의기는 순치되어 다음 단계를 위한 경력관리용 디딤돌 스펙하나 놓으면 되는 심사로 바뀌기 쉽다. 그러니 내실보다는 홍보가 ‘직업이 고위직’인 인사들의 총장 순례기(巡禮記) 제 1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희망의 환상은 주지도 못하고 대신 푸념으로 시작하여 푸념으로 짧은 글이 종반에 이르니 그래도 뭔가 아쉽다. 정말 우리에게 기회는 없고 총장이 누가 되느냐가 그리 의미가 없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회(chance)와 선택(choice)

이라는 두 개념의 창조적이고 혹은 우연적인 조합에 한 번 기대를 걸자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 나라의 운명도 그렇거니와 한 조직의 운명 또한 그러리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기회는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함부로 (혹은 희미하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환경 변수다. 이것을 잡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다. 막강한 상대방 투수의 실투(失投)를 노리는 야구 경기와 같다.

이런 교훈(혹은 사회과학적 이론?)의 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니 아무래도 희망의 끈은 결국 교수사회에서 찾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대학에서 장기적 이해관계자는 재단과 교수사회와 직원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율성이 더욱 보장된 집단은 재단과 교수사회다. 이 두 집단이 서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논증하려면 또 한 편의 글이 필요하니 독자들의 추론에 맡기기로 하고 다만 두 가지 점만 지적하고 글을 맺기로 한다.

재단과 교수사회 양자 간의 협업은 기본적으로 지난한 작업이다. 대학을 암묵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재단의 입장을 (그것도 이른바 ‘주인’이 있는 대학이라는 재단의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가만히 있어도 본전인데 무엇하러 교수집단과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해 타협하려는가? 진정 대학의 존립이 위협을 받아서 교수들과 함께 ‘으싸 으싸’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상황이 아니면 생각을 바꾸기는 할 것이다. 이른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감동적인 그러나 결코 오기 힘든) 반전 드라마의 상황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 양자간 협업이 어려운 연유는 교수 사회에도 내재되어 있다. 교수사회는 앞서 지적한 각자도생이 구조적으로 가능하고 동시에 (재단에 비하여) 다수의 플레이어가 존재하기에 항상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존재라는 약점에 취약하다. 그나마 무임 승차자 뿐 아니라 유임 승차자(有任 乘車者)가 아직은 좀 존재하기에 재단에 비하여 협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나는 아직도 교수 사회만이 그나마 기댈 희망이라는 판단이다. 그냥 교수 사회가 아니라 ‘각성된’ 교수사회 말이다.

정년을 얼마 안 남긴 허름한 내가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달은 ‘각성된’ 교수사회의 모습은 지적 정직함(知的 正直

intellectual integrity)과 이에 바탕을 둔 구성원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로 버무려져있다. 1918년 뮌헨 대학에서 행한 그 유명한 ‘직업으로서의 학문’ (Wissenschaft als Beruf)이라는 강연에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충고하고 있다. 학문의 길을 걷는 자는 어설플 이념적 ‘가치 판단’의 기치 하에 휘둘리지 말고 지적(知的) 작업에 충실해야 하는 도덕적 소명(召命)에 민감해야한다고. 100여 년 전 베버의 이런 충고가 아직 율령으로 다가오는 것은 결국 대학이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중국에는 삶의 종착점이듯이 우리가 고민하는 다단한 대학문제의 종착점은 이 근본적 질문이다.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그러나 피하기 힘든 이 질문이 개인적 인간관계와 학과와 단과대학을 넘어 지배적인 공적 담론으로서 위치를 점한다면 우리는 대학사회가 건강한 긴장관계 하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긴장관계가 지적 정직함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각자도생의 무임승차 교수나 ‘영혼 없는’ 교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한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주대학 교수사회는 이미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답은 선언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읽혀지지 않고 그 결과 존중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교수회에서 연구와 고심 끝에 선포한 <아주대 교수 윤리 강령>을 일독(一讀)하시길 권한다.

이제 결론은 다소간 명확해졌다. 총장은 그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을 이루기 힘들다. 문제는 총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다. 지적 정직함으로 버무려진 건강한 긴장관계를 가진 교수사회 만이 그나마 총장의 운신 폭을 넓혀 재단과 교수사회를 협업의 장으로 이끄는 아주대 운전자 역할로 인도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라고? 물론이다. 그러나 누가 아는가? 그 암울하던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운전자의 탄생이 가시권에 들지 않았는가! 조금만 덜 부끄럽고자 애를 썼던 기억에 의지하여 용기를 낸 글이니 너무 가혹하지 말기 바란다. 그 대신 짧은 팁 하나 선사하며 마친다. 아주대 예비 ‘운전자’를 배양할 제도적 장치와 인재를 소개한다.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공적 담론을 생산하는 교수사회의 대표기관인 교수회와 교수회 의장이 바로 그들이다. 제가 제 스스로를 귀(貴)해 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우리를 귀(貴)해할 것인가?



신임 총장에게 바란다 | 단대별

단대별 | 공과대학

아주호에 희망을!

건축학과 이규인

아주대학교에 취임하신 박형주 총장님을 따듯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부드러운 인상과 취임 초부터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것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학생들과 잘 소통하고, 교수 및 직원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아주호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금의 대학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에는 정체된 대학 분위기, 늘어가는 자퇴생, 재정 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하게 해결

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주대 구성원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은 이미 교수, 학생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창구를 여셨습니다. 교수들을 총장실로 초대하고, 도서관 카페에서 자주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5페이지에 계속

자주 만나는 것과 함께 구성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경청하고 대학의 현안에 대한 진솔한 공유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행복과 대학발전을 위한 희망을 다시 세우고, 이를 같이 실현해 나갈 구성원의 의지를 끌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대학은 이름만 클 뿐 소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대학이라는 이름은 사서 중 가장 중요한 경서(이론서)인 대학(大學)에서 유래했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대인지학, 大人之學)이라는 뜻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이 그 핵심입니다. 스스로 바른 인성과 내면을 닦는 일 그리고 사회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대학 교육인 것입니다.

큰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기본을 갖춘 교양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본성을 발견하여 바람직한 품성을 형성하고, 배려와 소통의 자세를 몸에 익혀 좋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중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합니다. 바르게 말하기, 잘 쓰기, 외국어 역량, 기초전문 역량 등을 배양을 위한 교양교육의 혁신을 기대합니다.

기본이 잘 세워진 바탕 위에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전문교육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론 위주의 수업만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전공인으로서 실력을 체화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실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시에는 사회가 탐내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최근 건축학과에서는 집짓기 과목을 2학년 1학기 정규교과목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과목학을 통해 축적한 집짓기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직접 집을 설계하고 지어보는 교육과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집짓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공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전공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빠른 시기에 적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전공심화 학습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선체험 교육과정을 통해 적성을 찾은 학생들은 더욱 큰 전문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학의 큰 교육에 대한 희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내시어 퇴임하실 때 아주대를 가장 사랑한 총장, 아주대가 가장 사랑한 총장으로 기억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단대별 | 정보통신대학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전자공학과 양희석

나는 세상 모든 일에는 서로 긴장하는 양면의 지향점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가령 운동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돈(프로)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순수한 열정(아마추어리즘)을 요구 받는다. 학자는 상아탑에 파묻혀 진리에 천착하길 기대 받지만, 동시에 (인문계나 이공계나 할 것 없이) 현실세계 변혁을 이끌어가는 역할도 요구 받는다. 이와 관련한 격언만도 당장 여러 개가 떠오른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고, 어떤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지니라고

했으며, 흔히들 하는 말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라고도 한다. 오죽 했으면 성서에서도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했겠나.

깊은 통찰에서 나온 말들이겠지만 요즘은 너무 당연해져서 크게 울림이 없다. 오히려 이런 양면성은 많은 경우 빈정대는 데 활용되는 것 같다. 예컨대, 선비같이 깨끗한 학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샌님으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나름의 외부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자는 돈/명예를 좇는 장사꾼으로 쉽게 비틀어 비아냥댈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이런 양면

성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무심함이 학자의 순수함으로, 곡학아세하는 가짜 학자들이 사회참여 지식인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내가 학부생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원생, 박사후과정을 거쳐 교수가 되기까지 20년의 시간 동안 주변에서 대학이 위기라는 말이 들려오지 않은 시기는 없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진단과 비판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들이 대부분 공허한 메아리로 식사 후 커피 시간 정도를 맴돌다가 끝날 것을 알만큼 경험치가 쌓였다.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야 할지, 자기방어적 냉소주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취임하신 총장님께 바라는 글을 기고해달라고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양면성이었다. 모르긴 몰라도 총장으로서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이제 이 양면성의 도마에 오를 것이고, 결정이 어느 쪽이든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은 시작점에 계신 총장님께 이 부분에서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연초에 총장님이 모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던 생물학자 Leon Avery가 교수 자리를 버리고 수학과 대학원에 학생으로 입학한 이야기였다. 흥미가 생겨 그 교수가 교수직을 떠나면서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 아주 개인적인 톤으로 자신의 결단을 네 가지 이유로 건조하게 설명한 글이었다. 놀라운 것은 40년 대학에 몸담았던 노학자의 문제의식이 갖 대학에 생계를 건나 같은 젊은 교수들도 공감할 수 있고, 몇 해 전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어느 20대 청년의 이야기까지 맥이 닿아있다는 점이었다. 아마 총장님도 깊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Leon Avery가 제시한 네 가지 이유 중 개인적으로 보이는 첫 번째 이유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과도한 관료주의’, ‘유용성만이 강조되는 편당’, ‘학생들의 처우 문제’ 등이 이야기 되는데, 어느 것 하나 공감 가지 않는 것이 없고, 모두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실타래 같은 문제이다. 학문의 순수성을 이야기 하며 연구의 유용성만 강조하는 세태를 비판하기엔 부양해야 할 학생들 미래가 어두워지고, 학문의 유용성이니 순수성이니 왔다 갔다 하다가도 영수증에 풀칠을 하거나 과도한 관료주의로 직원들과 전화로 입씨름하기 바쁘다. 연구도, 행

정도, 교육도 ‘학교에서 나에게 던져준 룰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나는 좋은 교수가 되는 걸까?’ 라는 물음에는 이미 회의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이제는 그저 선배 교수님들의 조언대로 ‘절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절반은 학교가 하라는 대로’ 사는 기계적 타협점에서 줄타기하는 중이다.

조합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론 중 진화 알고리즘이 있다. 문제의 해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유전자 형식으로 인코딩하고, 현재 개체들의 최적화 정도를 정해진 룰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최적화 정도가 높은 개체는 살리거나 번이나 교배를 통해 재생산시키는 반면, 최적화 정도가 낮은 개체들은 높은 확률로 도태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도시공학, 산업공학 내 많은 복잡한 문제에서 인간이 만든 연역적인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최적화 결과를 보인다. 단, 이 과정에서 최적화 평가 방법이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어야 하며,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척도로 높은 최적화 정도를 가진 개체만 살리는 것보다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중국에는 최적의 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구/교육 환경, 행정의 간소화, 처우, 학사제도 여러 단편적인 이슈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 몇 개를 언급한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개선이 있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 나는 다만 저 진화 알고리즘의 시사점을 대학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나 학생이나 직원이나 모두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 그 잣대가 대학이라는 생태계가 지속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준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평가의 척도를 다변화하여 학문이나 교육에서의 다양성을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이 올바른 척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성이 보장되는 곳인가 하고 자문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지난 달 총장님이 학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적으로는 준비해 오신 수첩에 적힌 메모를 참고하시며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직접 언급하시며 답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라는 현실을 잊지 않으면서도, 좀 더 대학의 본분에 맞는 일을 고민해보려 하는 자세를 나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다시 한 번 서두에 언급한 양면성을 언급하자면 고개

는 하늘을 들어 이상을 보되, 발은 땅바닥에 닿아 있으려 노력하시는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총장님은 계속 이런 양면성의 딜레마에서 자신의 주관을 찾아 그 방향으로 아주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실로 대학이 위기라고 한다. 학생들로부터도 교수들로부터도 아주대의 미래에 대해 걱정 섞인 푸념과 전망을 듣는 것

이 일상인 엄중한 시기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총장님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항상 함께 있길 응원한다.

단대별 | 자연과학대학

새 총장에게 바랍니다.

생명과학과 박상규

대학의 진정한 몸체는 캠퍼스라는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 교수, 직원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주대학교라는 조직의 수장으로 새로이 취임하신 박형주 총장님께 자연과학 대학의 한 사람으로써 바라는 말씀을 몇 자 적어 봅니다. 아주대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선의(good will)를 구현하는 것이 학교 본부이며 이러한 학교 본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곧 총장이니 새 총장님께 바라는 내용은 결국 우리 대학교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며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바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대학의 정체성을 모든 구성원이 늘 고민하며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총장은 더더욱 대학 정체성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학은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양산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만들어내는 인재를 길러내고, 스스로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육 기관이자 연구 기관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불의에 신음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집단 양심을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등록금 및 늘어난 인적 자원 등으로 늘 돈 걱정에 허덕이며 국가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수도권 언저리의 위태로운 작은 대학입니다. 또한 등록금 동결과 예산 절감으로 교육의 질은 계속 저하되고 정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교양과 전공 교육과정이 매해 바뀌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어떤 가치를 지키며 어떤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며 어떤 방향의 연

구를 할 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가치 즉, 우리 대학의 존재의 이유를 천명하고 지켜나가는 데 가장 힘을 쏟으셔야 하는 분이 바로 새 총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수호는 눈에 그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보람되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예상되는 대학 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대학의 혁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과정을 조정하고 새로운 혁신의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새 총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몇 년 내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문·이과가 통합되는 등 대학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며 우리 대학은 현재 여러 가지 혁신을 기획하고 있고 아마도 이를 구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 각 개인과 단위 학과는 학교 본부의 혁신 시도와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통해 어떤 방향성과 개선 방향이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는 과감한 실천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 없는 위로부터의 급작스러운 개혁과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구성원들의 아래로부터의 반발은 대학의 혁신과 변화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조직은 개개의 구성원 보다 더 현명하고 더 공동의 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대학 본부는 개개의 구성원들의 선의를 충분히 모아낼 수 있어야 하고 개개의 구성원들은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론화에 참여한 뒤 이의 추진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이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타성을 넘어서서 공동의 생각과 지향을 모아내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만들어내

는 요람으로써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새 총장님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팔로우십을 기대합니다.

단대별 | 인문대학

여유

사학과 김 종 식

신임 총장이 부임하고 인문대학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학과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나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다른 학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나에게 사학과 이외 다른 학과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나간 시간이 되 돌아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학과의 속사정은 총장 간담회와 같은 자리가 아닌 인문대 교수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식사시간이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간담회 보고에 따르면 각 학과는 특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성화는 학과의 전공 특성을 반영한 방향성을 기본으로 하고, 융합적인 성격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각 학과의 특성화를 위해 전공교육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고,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고 있었다.

인문대학 각 학과의 특성화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 어려움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지만, 단순히 정리하면 자원과 인력의 부족이다. 절대 부족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 상대적 부족은 부족하다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무엇일까.

각 학과의 융합적인 성격의 특성화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많은 인력의 충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합교육과 연구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분야의 교수들이 필요하다. 융합의 출발은 교수 상호간에 알아가는 시간과 신뢰이다. 같은 단과 대학 내에서의 융합을 위해서도 교수 상호간에 세부전공분야에 대한 상호이해와 신뢰가 필요한데, 하물며 다른 단과대학과의 융합은 말할 필요도 없다. 융합은 단지 머릿속의, 컴퓨터 화면의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신뢰를 쌓고, 신뢰 위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탄실하면서 구체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구현된다. 현재 인문대학 교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육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유일 것이다. 여유는 행정부담의 경감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이다.

단대별 | 사회과학대학

기초 교육을 강화하자

정치외교학과 이왕휘

먼저 박형주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전임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신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서 처음부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외적으로도 고졸 수험생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여파가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총장님의 탁월한 비전과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대학교육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 교육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서 가르치는 많은 과목이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 교육 자체가 시간과 돈의 낭비라는 교육 무용론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라이언 캐플란 교수는 대졸자의 소득이 고졸자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전공지식 때문이 아니라 학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Bryan Caplan, *The Case against Education: Why the Education System Is a Waste of Time and Mon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이런 비판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회- 특히 기업 -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용과 방법 모두 더 실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식을 생산하는 본연의 목적을 더 강화하기 위한 기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논쟁의 구도를 보면 전자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은 물론 초등학교에서까지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무적인 과목을 강조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고력을 기르는 기초 교육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 수준의 대학들을 보유한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Fareed Zakaria, *In Defense of a Liberal Education*, W. W. Norton & Company, 2016).

대학교육 무용론이 지적하듯이, 실무 교육은 대학뿐만 아

니라 기업, 연구소, 학원 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 교육은 대학에서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기초 교육에서만큼은 대학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대학’다워지려면 다른 교육기관에서 대체할 수 없는 기초 교육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 교육의 강화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필요성은 대학이 스스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업, 사회단체에서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마저 이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면, 기초 교육의 미래는 아주 암울할 것입니다.

대학 밖은 물론 대학 안에서도 사회적 추세에 거슬리는 소수 의견을 견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majority)가 항상 주류(mainstream)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새 총장님께서 우리 대학을 기초 교육이 강한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1.7개의 지구

약학과 김 홍 표

‘총장에게 바라는 글’ 원고를 부탁받았다. 어려운 주제다. 추상적인데다 영양가 없이 관념적인 단어를 나열하면서 시간과 지면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 날을 고심했다. 하지만 이번 글도 역시 감정적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한 걱정이 든다.

4차 산업 혁명의 장밋빛 미래를 떠올리면서 우리 대학의 장래를 미사여구로 장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뒷덜미를 잡는다. 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해에 태어난 사람이다. 내 동년배들이 특히 일찍 죽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에 아마 이 세상에는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결론이 과히 틀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일곱 자식들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으며 우리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은 자전거였다. 조선시대에도 썼음직한 농기구를 써서 탈곡을 했고 버스를 타기 위해 십리를 걸어 나가야 했다. 다 옛날 얘기다.

어릴 적 내 주변에서는 산업 혁명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증기 기관은커녕 마소(馬牛)가 끄는 구루마가 나락을 실어 날랐고 우리는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다. 현대 지금은 어떤가? 나는 손바닥 안에 컴퓨터를 들고 왜 우리 인간의 적혈구에는 핵이 없는지 검색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잠을 자고 옷 입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릴 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 소매에 윤기가 흐를 정도 콧물을 비벼 댄 옷 한 벌로 겨울을 났던 시절은 기억에도 가물가물하다.

현재 지구에 사는 인간의 수는 75억을 넘어 섰을 것이다. 유엔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먹고 자고 입는데 필요한 자원과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매년 일인당 평균 1.8 헥타르의 땅이 필요하다고 계산한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5,500평 정도가 된다. 과학자들은 저 값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라고 부르는데 1995년 이후 한국은 세계 평균을 넘어서 현재 그 값은 4가 훨씬 넘는다. 한국 사람들만 이 지구에 산다고 치면 우리가 사는데 매년 지

구가 2.2개가 넘게 필요하다.

우리는 지구를 좀먹고 있다. 대학을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남겨줄 것은커녕 빗만 물려주는 형국이다.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생각하고 인간을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가정 한 채 이 세계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구를 ‘가이아(Gaia)’라고 부른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낸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온실로 만들면 지구는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바닷물의 과도를 높이면서 대응하리라는 시나리오를 거침없이 전개한다. 가이아 가설의 주창자들은 학교에서 전기가 없는 상황에 대해 학습을 하고 “정글의 법칙”에서처럼 나무 조각을 사용해서 불을 지피는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이아 이론을 목청껏 설파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한 극단이라고 한 편으로 짓혀놓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학생들에게 우리는 인공 지능과 함께 빅 데이터를 다루며 살아가야 하고 주위의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교육해야 한다는 소리도 자주 듣는다. 나는 가이아 이론을 신봉하지는 않지만 열역학적으로 지구는 열린 계(system)이며 태양에서 도달하는 에너지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준안정적인 구조라고 생각한다. 이 지구는 그 정도의 재정(budget)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태양계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인류가 함께 살아가려면 평균 1.7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값은 오직 인간만 고려한데다 그것도 몇 년 전에 얻은 수치이다.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은 2035년이 되면 우리 식탁에서 생선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과 같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말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날 인류를 먹여 살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은 당대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총장에게 부탁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담론을 두고 나는 지금도 답을 몰라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단대별 | 간호대학

박형주 총장님을 만나고

간호대학 송미숙

나는 김효규 총장님과의 만남으로 아주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경기초등학교 학생 때 교의로 만났던 총장님을 대한의사협회 연구원 시절엔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은 옥포대우병원 이사장님으로, 주례선생님으로, 아주대 총장님으로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작고하시기 십분 전까지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뵈어 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인생 스승님이시다.

1989년도 어느 날 오후에 총장님께서 급히 찾으신다고 해서 달려 가보니... 도서관을 지나 율곡관으로 올라오는 길목에(당시는 방치해 두었던 공터였지만) 벚꽃과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어떤지 물으셨다. 내 생각으로 별로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셔서 적이 실망했었고, 평소에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을 질문하셔서 순간 당황하여 생각해 보고 내일 말씀 드리겠다고 자리를 물렸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림픽을 치룬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즈음에 아주대 사거리에서부터 먼지 날리는 굵은 모랫길을 한참이나 걸어오다 교문도 없이 만나는 첫 번째 건물(현재 도서관) 2층이 바로 총장실이었고, 무척이나 더운 여름에는 대학 전체가 전기를 아껴야 한다고 에어컨을 마다하신 채 식당에서 손 씻을 때 내놓는 크기의 작은 수건을 올려서 머리 위에 얹고 계셨던 궁상스러울 만큼 알뜰하셨던 총장님이지만 무척이나 분위기 나는 원천캠퍼스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분의 꿈을 후대의 아주대 구성원들에게 소개한다.

당시 그분의 캠퍼스 조경 마스터플랜은 머릿속 한 가득이셨는데 벚꽃이 일본의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 나중에 일부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심한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총장님 질문을 가지고 집에 와 남편과 상의하니 의외로 답은 간단하였다. 일본의 국화는 국화꽃이고, 왕벚꽃나무는 번영의 꽃말을 갖고 있으며, 제주가 그 원산지이니 총장님 걱정은 필요 없게 되었고, 은행나무는 공룡시대 화석으로 발견되어 지금까지 살아남은 나무이니 신생대학의 유구한 발전을 지향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캠퍼스 조

경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렸더니 무척이나 반기시면서 조경의 달인 정홍련 선생님에게 당신의 세세한 조경계획을 전달하셨다. 요즘에 이르러 그분의 희망덕택에 오늘날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는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도 즐겨 찾는 훌륭한 캠퍼스가 되고 있다.

김효규 총장님 이후 꽤나 많은(?) 총장님들이 오고 가셨지만 이분처럼 낭만적인 총장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아침마다 캠퍼스에 들어오면서 총장님께서 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보셨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께서 꿈 꾸셨던 그 모습대로 아주대 구성원들이 모두 빠짐없이 형형색색 절기마다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즐기고 있으니 무엇보다 그분의 희망이 오랜 시간이 흘러 현실이 된 이 기쁨을 대신 누려본다.

박형주 총장님께서 부임하자마다 단과대학별 릴레이 면담의 맨 마지막은 간호대학 면담일정이었다. 작은 수첩에 빼곡히 기록하신 면담결과를 우리 교수들과 일일이 공유하시면서 당신의 생각을 나누고 가셨다. 그 수첩 안에는 내일 당장 풀어내고 싶으신 과제도 많겠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박형주 총장님께서 품으셨던 희망이 아주 구성원들이 두고 두고 함께 나누고 감사할 과제도 있었으면 좋겠다. 총장님의 수첩이 먼 훗날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줄지 그 희망보따리에 잔뜩 기대를 걸어본다.

단대별 | 의과대학

총장에게 바란다

의학과 미생물학교실 박 선

의과대학은 의료원체제에 속하여 대부분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본교의 행정체제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를 잘 모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교 교수들도 의과대학이 속한 의료원체제와 구성원에 대해 낯설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의료원체제 하의 의과대학과 본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차이점이 있어도 별로 부각이 되지 않고 큰 이슈가 없으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다.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하고 아주대학 총장은 아주대학교 전체의 최고위 리더로서 모든 단과대학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각 구성원들을 고르게 이해하고 살피야 하므로, 신임 총장은 의료원에 소속된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의료원 구성원 중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신임총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의료원 재정에 대한 것이다. 의료원 재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의료원 수익이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의료원 수익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적인 예는 아주 의대가 의과대학 내에 학생실습용 머미(mummy)가 없는 국내 유일의 대학으로 추락한 사실이다. 이제는 의과대학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재단에서 약속한 병원 건축 비용을 병원 수익으로 충당하고, 의과대학 교원의 기부금으로 세운 주차장을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바꾼 것을 기억하는 의과대학 구성원들이 재단에 피해의식이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원, 법인, 학교 회계와 관련하여 법인 위주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을 기대한다.

두 번째는 보직교수임명에 대한 일반교수의 의견 반영이다. 이제까지 의료원 기관장 임명은 아주대학교 다른 보직 인사와 달리 일반 교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병원장은 물론, 교수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학장 임명에조차도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의대교수회를 통해 올

해 신임 의료원장 임명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재단에 전달하였으나 무시되었다. 의료원장과 재단의 관계는 설정되어 있으나, 일반교수와 재단의 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중요한 결정은 교수들의 의사와 관계가 없는 다른 곳에서 결정되고 있는 현상은 민주적 리더십의 심각한 손상이라고 생각된다. 총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해 본다.

세 번째는 총장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의료원 교수들도 아주대학교 교수로 느낄 수 있도록 총장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교의 지원 체계 내에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 행정체제의 분리와 재정의 별도 운영 때문에 본교의 여러 가지 교수 지원체제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외되었고, 총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취임 후 단과대학별로 마련된 - 총장 임기 중 일회성으로 그친- 만남의 자리가 전부였다. 더욱이 이번 총장과 의대교수의 만남은 의료원 보직자와 만나는 자리로 대체되었고, 의대의 일반교수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공지도 되지 않았다. 의대 교수들과 총장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속히 만들기를 바란다.

네 번째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점이다. 본교와 달리 의과대학, 특히 기초의학교실의 경우 연구 및 조교 업무를 전적으로 타 대학 졸업생에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한 때 조교제도, 학사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본교와는 다소 다른 형태로 운영되던 것들이 이전 총장의 요구에 의해 통일적으로 적용되어 기초의학 실습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아직도 그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총장은 의과대학을 아주대 구성원으로 품고, 의대에 산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의과대학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활력 있게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

소통과
담론

아주대학교,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어영문학과 한 호

10년 뒤 우리대학의 교육 부문 변화를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대내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변수들을 추출하여 나름대로의 예측을 해본다면 그 예측을 통해 대비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본다. (본 의견에 반박의 이견이 있을 경우 탁류청론을 통해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학 교육의 근원은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이 인간 본성과 자연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위해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세 유럽의 대학이나 중국 고등교육기관들은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엘리트 교육을 목적으로 인문학, 자연과학, 신학, 의학 등이 주요 교육 분야였다. 18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산업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확대는 기득권층이 원하는 부속품으로서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목적이었고, 시민정신이 발달한 근대에 들어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주체성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그 목적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압축 고도성장으로 생존에서 만족의 시대로 넘어왔지만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은 여전히 수요자로서 대졸자들이 대학에서 기업이 원하는 (유효기간 30년의) 부속품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받기를 원하며 각종 인증 제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통해 대학교육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이런 관념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지식들은 몇 년간만 활용되고 쓸모없는 것으로 될 것이며 이런 현상은 직업 적합성이 큰 전공분야에서 더 크게 목도될 것이다. 기업도 깨달을 것이다. 전공지식보다는 기초역량, 즉 주체적 학습의지의 근력이 탄탄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하며 변화하는 지식을 주기적으로 습득하는 사람이 더 유용한 인재라는 것을. 우리대학의 교육도 10년 뒤에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전공에 따라 전공수업의 강화를 통해 그런 기초역량을 담보해주는 전공도 있긴 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표적인 예가 직업 적합성이 낮은 인문학이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대다수의 전공은 직업 적합성이 매우 높은 전공들이므로 이런 전공들의 교육과정에 기초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어떻게 습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표는 이 글의 두 번째 논점의 출발이 될 것이다.

대학진학 학령인구와 초과정원의 장래 추계 (단위: 명)

연도	2013년	2018년	2023년
학령인구	687,455	598,296	433,032
고교 졸업생	631,835	549,890	397,998
입학정원	559,036	559,036	559,036
초과정원	72,799	-9,146	-161,038

자료: 교육부 대학지원실(2014)

10년 뒤도 아닌 5년 뒤에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 입학생 수가 정원대비 7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 주도의 구조개혁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 비율은 대략 75%가 될 것이다. 그래도 전국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은 정원 미달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대학도 입학자원의 부족을 겪지는 않으리라 예측된다. 하지만 입학자원의 질적인 특성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만의 길을 선구자적으로 갈 때 과연 교육시장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위치인 것 같지는 않다. 천박한 용어지만 일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류도 아닌, 1.5류인 것이 우리대학의 현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일류나 이류라는 기준은 순전히 ‘우매한 대중’의 사회적 통념에 근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 ‘우매한 대중’들이 우매하지도 않고 매우 영민한 교육시장의 고객임을 기억해야 한다. 1.5류의 갈 길은 간단하게 두 갈래로 보인다. 일류가 되거나 이류가 되거나.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아마 모두 우리대학이 1류가 되길 바랄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해서 아무나 입학해도 고급의 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교육과정이 있다면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수년 전 유수의 컨설팅 회사가 서울의 주요대학

을 컨설팅하고 대학의 생존은 앞으로 양질의 입학자원의 확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요약하자면, 입학자원이 줄면서 입학자원의 입학 당시 학업 수준이 현재 자원들보다 뒤쳐질 것이며, 문·이과 통합교육이 실시되면서 공학계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대학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10년 뒤에는 양질의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력적인 상품으로 호소할 수 있는 학사구조와 교육과정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화하는 지식사회의 급류를 타기 위해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기존 입학자원과 완전히 다른 대상을 위한 평생교육체제에 근간을 둔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전공의 특성화를 넘어서 학교 전체의 결집된 특성화가 필요하며, 지식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사회적 관념과 입학자원 학생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교수의 변화를 이야기할 차례다. 교수의 역할, 나아가서 직업적 윤리는 교육 및 연구와 관계된다. 미래에는 소수의 강의를 잘하는 교수와 다수의 강의 콘텐츠 개발자로서의 교수가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이유는, 먼저 교수 학습 환경의 변화에 있다. ICT 근간 교육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초중고 시절부터 온라인 강의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대학은 더 많은 사이버 강의를 제공할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나 교육의 국제화 노력에도 온라인 강의 체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의실은 더 이상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도록 하고 학생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의 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수 연구의 성과가 대학원 수업 정도에 활용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학부 강의 콘텐츠가 연구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교수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교육을 위한 연구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10년 뒤 우리대학도, 전공별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직업 적합성이 높은 전공에서 소수의 우수한 강의 전달자가 다수의 교수들이 함께 개발한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하는 일이 보편적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이 교육으로 이어지는 과

정에서 교수들은 더 이상 학과명으로 규정된 전공의 개념에 집착하지 말며 입학정원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학과란 교수(faculty)의 학과란 개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의 소속 학과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대학 전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연구윤리를 준수한 연구를 통해 교수의 자아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각 논점별 자세한 사안들을 지면 제한 상 다 기술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보통 예측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변화를 예측했다면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며 앞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10년 뒤의 생존을 담보할 대응 전략을 몇 가지만 제안하며, 올 2월에 방영되었던 EBS의 교육대토론회 ‘대학의 미래’라는 프로그램의 시청을 당부 드린다.

- 무경계 입학: 적어도 계열별이라도 무전공 입학 후 학생들이 전공을 후에 정하는 시스템. 문·이과 통합 후에는 계열 구별도 무의미하게 될 것임

-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양교육의 강화: 의사소통교육과 교양교육을 강화하며, BSM은 교양과 전공기초의 두 트랙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전공기초는 모듈화된 사이버 강의 블록을 개발하여 표준화하며 수요자가 모듈을 선택해서 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대내외 학과평가 결과와 교수대 학생 또는 개설과목 수강생 수 비율을 바탕으로 한 교수 층위 지표 개발 및 운영

- 자기주도적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습자 선택권 강화: 학습자가 전공을 제안하거나 결정해서 졸업하는 시스템 구축

- 졸업이수확점 확대: 재정 여건 상 교수 책임시수 확대가 필요해 보이나 일단 확대한 뒤 연구업적에 따라 책임시수 감면, 또는 연구와 교육의 비중을 교수가 선택하게 하는 제도 운영

Physician-Scientist?

의학과 뇌과학과 김 병 곤

위와 같은 제목으로 원고 부탁을 받고 나서 거의 2주나 지연되어 글을 쓰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일상으로 바빠서 잊고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는 매일 매일 비슷하게 느껴지는 일상을 어떻게 읽는 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풀어낼지 막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먼저 Physician-Scientist를 잘 모르시는 타 단과대학 교수님들을 위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을 흔히 임상학과 기초의학으로 이분하여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다. 사실은 특이하지는 않은 것이, 최근 많은 임상교수님들이 실험실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모두 Physician-Scientist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 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임상 진료에 투자하는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는 적어서 1주일에 만나질, 즉 나의 활동의 10% 만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일 것 같다.

그런데 나의 경우가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은 역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많은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나 생명과학과 관련된 본교 교수님들께서 해외 유학이나 연수시절 임상진료 보다는 실험실 연구나 교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왕성한 연구실적을 보이는 임상 의사 겸 연구자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다.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일본 등 생명과학의 선진국에서는 질병의 원인과 진단 치료의 체계적 지식을 체득한 임상 의사들이 기초 생명과학 연구에서부터 신약, 영상, 기기 등 개발 분야까지 의생명 관련 다양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진료에 최소한의 시간만을 투자하거나 아예 진료는 하지 않고 리더십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상진료를 유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1) 다른 임상 의에 비하여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월급의 보전, 2) 연구 분야가 희귀질환 분야라서 관심 환자만 진료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고 임상 진료 자체가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경우, 3) 뇌영상이나 진단기기 개발과 같이 연구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의 샘플이 연구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어떤 경우든 내가 직간접으로 경험한 외국의 physician-scientist 들은 대부분 외래진료 10% 혹은 1년에 1달의 attending physician으로 입원환자를 진료, 혹은 둘을 병행하는 경우들이다.

이제 다시 나 자신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위의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2), 3)이 제일 멋있게 들릴 것 같은데, 다소 썩스럽지만 1)의 이유로 외래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고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현실적으로 비추어질 것 같아서 외래를 유지하는 보다 창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1주일에 한번의 외래를 보지만 사고 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려면 계속 발전하는 임상지식에 대한 catch-up이 필요한데, 주객이 전도된 것일지는 몰라도 임상진료를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료지침이나 신약, 영상기술의 발전 등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임상지식을 유지하다 보니 임상학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유지되어 1년에 최소 1회는 임상학회에 참석해서 변화의 흐름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다. 또한 환자 진료를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얘기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1주일에 한번 외래를 보면 외래를 보는 시간이 가끔(?) 즐겁다. 환자들을 만나서 처방을 주고 placebo 효과인지 기적의 명약을 처방해서인지 다음 번 진료에서 증상이 매우 호전되는 경우, 나의 지식과 노력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실험실에서 세포나 동물과 씨름하면서는 좀처럼 느끼지 어려운 그런 느낌이 '가끔은'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외래를 한번만 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어서, 1주일에 늘 고정된 시간에만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외래를 한번만 보는 좀 이상해 보이는 의사 대신 능력이 더 출중하신 신경과 다른 교수님 외래로 갈아타는 똑똑한 환자들이 많아서 환자의 유지가 좀 힘든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몇 년 이상 본인의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나도 나름대로 명



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원대한 사명감을 가졌거나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른바 Physician-Scientist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 되었고,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좋은 점, 나쁜 점, 장단점 등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다 개인적인 얘기라서 지면에 옮기기는 힘들 것 같다. 한가지, 아직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왕에 Physician-Scientist가 되었으니, 진료를 적게 보는 것만 닮지 말고 연구역량도 세계적인 Physician-Scientist를 닮아서 그들처럼 선도적인 의생명과학자로 흔적을 남겨 보고 싶다.



교수회 소식

제89, 90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지난 3월 26일 월요일 오후 7시 종합관 12층 코너스톤에서 89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신입 대의원 소개 및 2017학년도 교수회 총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16대 총장천거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과 대학평의원회 예·결산 심의 및 의과대학 현안에 대한 논의, 사교련 활동 및 교수회 활동 관련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월요일 오후 7시 종합관 12층 코너스톤에서 90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대학평의원회 결산안 자문 의견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교수회 감사 선임, 교수회 주관 가을 산행 계획 추진 관련과 총장천거위원회 관련, 1학기 중강모임 일정이 논의되었으며, 기타 논의사항으로 교수회 홈페이지 신규 개설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교수회에서는 매 학기 월례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